

•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

시 정 연 설

논 산 시

존경하는 논산시민 여러분 !

그리고 구본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

오늘, 2021년도 예산안을 마련하여 시의회에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논산시가 거둔 성과와 새해의 시정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시정운영에 항상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고 시정의 주인으로서 함께 고민하고 참여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올해에도 변함없는 열정으로 민의를 대변하며 열린 의정을 실천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논산시민과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시는 “소통과 협력”, “참여와 연대”를 핵심가치로, 더불어 함께 잘 사는 동고동락 공동체 논산을 만들기 위해 힘차게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하기 위해 세일즈 행정을 통한 지역의 경제적 기반을 조성하고, 사람 중심의 교육·문화·복지정책 등을 추진하여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공동체 도시로 발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로 인한 경제 전반에 불어닥친 불황으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 서민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위축된 소비심리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339억원을 비롯해 저소득층 생활지원

비 40억, 소상공인과 실업자를 위한 긴급생활안정자금 57억, 운수업체 및 택시종사자 지원금 9억2천만원, 농어민수당 54억원, 그리고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고위험시설 258개소에 각 10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지원 이외에도 휴교나 휴원으로 인한 자녀돌봄공백 가정을 위한 ‘긴급돌봄서비스 제공’과 ‘자가격리자를 위한 생활용품 지원’, 다중이용시설 등에 마스크와 손소독제도 지원하였습니다.

해외입국자 및 무증상 감염자에 의한 확진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4월 정부는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화 정책을 시행하고, 우리시도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하여, 격리해제 전 진단검사와 해외입국자 특별수송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격리해제 전 검사로 11명의 양성확진자를 선별·격리 조치하여, 자칫 발생할 뻔한 지역

사회 감염 전파를 사전차단하는 효과를 거두었고, 또한 24시간 인천공항에서 논산까지 원스톱 차량 지원으로 지역사회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감염 확산을 예방하고 입국자의 동선을 추적·관리하는 방역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처럼 위기 상황속에서도 능동적인 논산형 방역 정책은 K방역의 모범사례로 전국 지방정부의 방역 모델로 전파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논산시민과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져온 역경과 고난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는 신념 아래 우리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반을 다지고 “사람이 중심인 따뜻한 동고동락 공동체 논산”을 만들기 위한 한해였습니다.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추진해 온 국방 국가산업단지조성 사업의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고, 향후 KDI 경제성 분석에서 매우 긍정적인 결과가 예상

되며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국방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참여할 때 군 전력체제 집약화와 효율 극대화를 통한 국방력 강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방부·방위사업청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10월 논산시·충청남도·육군 군수사령부가 국방 산업 육성과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개소 1년만에 충남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이 약 20억원 규모의 국비사업에 선정되었고, 지난 3월 (주)대림코퍼레이션의 동산일반산업단지 이전을 위해 131억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고용창출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 4월 ‘2020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 사업’에 논산형 지역상생일자리 모델이

선정, 총사업비 2억원을 확보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지속가능한 고용창출과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 발굴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쾌거는 그동안 청와대, 국회, 중앙부처를 직접 찾아간 세일즈 행정의 결과이고, 여기 제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 덕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논산시민과 의원님 여러분!

‘동양 최장 600m 길이의 탐정호 출렁다리’가 내년 3월에 개통을 준비중이며,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멀티미디어 음악분수, 탐정호 순환둘레길 조성, 딸기향농촌테마공원 조성, 신평 수변산책로 등 나머지 사업도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탐정호 주변 주차장 조성을 비롯한 관광객

맞이에 도 소홀함없이 촘촘히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선사인스튜디오가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이색 지역명소 40선에 당당히 이름을 올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류관광지로 공식 인정받는 등 앞으로도 특색있고 차별화된 관광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여, 우리시를 전국 최고의 명품 관광도시로 완성해 가겠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논산시민과 의원님 여러분!

‘더불어 함께 살고 싶은 쾌적한 생활환경’ 과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 를 만드는 것이 “지속가능한 논산” 을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모 사업인 ‘2020년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37억을 확보하여 내동지구 생활·위생 인프라, 시민 안전망 강화, 경관·환경개선, 주택정비 지원

등 주민참여를 통한 마을
공동체 활성화와 삶의 질 개선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범죄취약 및 우범지역에 생활안전장치인 CCTV
123대를 설치하였고, 노성면 시도 1호선 외 5개소에
인도를 개설하여,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안심하고 걸
을 수 있는 안심보행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도심지 인근 및 주거지
주변 유희토지 18개소에 378면의 주차장 조성, 230면
의 내동 주차타워를 내년에 준공하여 시민들의 주차
만족도를 높여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을 만들어 나가겠
습니다.

익히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온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 지방정부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우리시는 맑은공기관리지

원센터 설립·운영,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사업, 클린
농산매니저 활동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의 삶의 질 개선
과 기후위기 대응 등 경제적 가치가 아닌 사회적 가치
를 중시하는 ‘사람중심도시’를 만들어 나가
겠습니다.

존경하는 논산시민과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교육 환경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 대면방식이 아닌 각 가정으로 학
습자료를 배달하여, 유선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한글
배달학교를 운영하여 2,000여명의 어르신들께서 배
움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보편교육 강화를 위해 1,301명의 학생들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관내 고등학교

13개교에 무상교육비 지원,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등 다양한 교육복지를 지원하였습니다.

시민모두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열린도서관 내 평생학습관과 평생학습센터 2개소, 면·동 지역에 마을배움터 10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독서인프라 확산을 위해 24시간 365일 스마트도서관을 논산오거리에 설치했습니다. 더불어 청소년행복재단 출범을 통해 청소년에 대한 진로, 교육, 자립, 문화 등 맞춤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논산시민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부터 실시한 읍면동장 시민추천공모제가 올해에는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속에서 정착단계에 진입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가사지원과 생활교육 등 다양해진 서비

스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안타깝게 했던 ‘인천 라면형제 사건’은 더 이상 돌봄영역을 개인과 가정의 부담으로만 방치할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끌어안고 촘촘하고 예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함을 방증한 가슴아픈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꽃 돌봄센터 3개소를 운영하여, 자녀돌봄공백 해소와 안전한 육아환경조성 등 아이키우기 좋은 논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인과 가족의 문제를 지역공동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만들어, 더 행복한 삶을 위한 따뜻한 동고동락 논산을 완성시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촌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운 현실에서도 농업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룬 한해였습니다.

전국 최고의 맛과 높은 당도를 자랑하는 논산딸기가
충청권 최초로 딸기 GGAP 인증을 획득해 더 많은
해외 수출의 길을 개척하였습니다.

이제 논산 딸기는 말레이시아, 태국, 대만 등 동남아
3개국에 이어 싱가포르, 베트남과의 수출MOU를 통한
총 1,500만 달러의 수출성과와 함께 앞으로, 바이어
초청 및 판촉행사, 수출품목 다변화 등 수출확대를
위한 해외 마케팅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올해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농민수당 지원 등
농산물 생산공급, 유통개선 등 농업경쟁력을 지속적
으로 확보하고 특히, 고령농·영세농 육성지원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자랑스런 논산시민과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정부예산 확보 협조에 힘입어,
2021년도에는 지방교부세 3,278억원을 확보하였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49억, 논산근대역사문화
촌조성사업 31억, 도시재생사업 75억, 생활SOC복합
화 지원사업 51억, 취암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4억,
전기자동차구매지원 40억 등 3,146억원의 국도비를
포함하여 총 6,424억원의 정부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정부예산 확보 이외에도 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협력
속에 시정전반에 걸쳐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었습
니다.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에서 4년 연속 최고 등급인
SA등급을 받았으며, 24시간 아이꽃돌봄센터는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0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우수 활용사례 공모전에서 ‘논산형 디지털 뉴딜인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이 대상을 수상하였고, 한국

형 디지털 뉴딜 우수사례로 정부혁신박람회에 소개되어 ‘디지털 도시 논산’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최한 ‘제1회 농식품 수출 우수지자체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마을민주주의 활성화에 기여하여 제1회 대한민국 헌정대상 지방자치행정부문 대상, 찾아가는 한글대학이 제1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대상에서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특히, ‘2020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함으로써

2015년부터 5회 수상의 영광을 기록했습니다.

4년 연속 ‘논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모범 우수기관상’을 수상했으며, 6년 연속 위임사무 등에 대한 시·군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달성하여 1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결실들은 지역의 미래를 걱정하고 협력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시정을 함께해주신 시민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논산시민과 의원님 여러분!

장기화되는 코로나 위기, 경제성장의 둔화 등 예측치 않은 대외 여건이지만 코로나 이후 사회 변화에 대비하고 위기를 헤치고, 내일을 위한 도전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 모든 시민들의 성원과 협력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변화와 담대한 도전에 나서야 합니다.

준비하는 자만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듯이 지난 10년간 펼쳐온 정책들을 기반으로 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논산, 사람중심 행복공동체 동고동락 논산을 완성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내년은 민선 7기를 마무리하는 해로, 그동안 시민들과 약속한 사업들이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나아가, 내년은 디지털 및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느끼고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새로운 미래 100년 논산을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2021년도 시정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안전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의 충격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랜시간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개개인의 자유’를 ‘시민 모두의 자유’를 위해 양보해 오셨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생명과 안전에 미칠 파고를 최대한 낮추고 극복하기 위해, 시민의 안전중심 인프라를 구

축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현재 간이형태의 선별진료소를 건물형태로 개선하여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진료, 검사가 가능한 공간으로 상시 운영되는 선별진료소를 구축, 일반진료와의 공간분리로 진료환경을 개선하고, 확진자로 인한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코로나 진단검사 대상자를 더욱 확대 지원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든든히 지켜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 기후위기 문제가 급부상하면서 정부도 저탄소 경제의 그린선도국가를 지향하며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에 발맞춰 지방정부 또한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여 에너지 자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등에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도 논산형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논산을 만들고자 도시·경제·복지·문화 등 각종 정책수립 시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 원칙으로 지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등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시민들의 환경의식을 높이는, 환경과 사람간 포용적 성장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한 귀갓길을 지키고 재난상황에서 우리의 눈과 귀가 되어 줄 CCTV를 마을 곳곳에 촘촘하게 설치하여 안전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시민의 안전과 치안을 위해 가로등뿐만 아니라 경관조명의 설치도 필요합니다.

우선 도제, 시·군제 및 공공시설과 읍면동 소재지까지 경관조명사업을 추진하여 도시미관 향상과 교통 및 방범 등 안전성 확보로 ‘밝은 논산, 안전한 논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보행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에 바닥

형 보행신호를 설치하여, 어린이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차로 안전 보행로를 조성하고, 화지시장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동고동락 함께 걷는길 사업’도 내년도에 완공하여 보행자의 생명과 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난과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주거지 주차장과 공영주차장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특히, 11개 면지역에도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안전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일자리와 경제를 지켜내는 선순환 경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민선5기부터 논산시의 성장동력 마련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재정 확보가 최우선임을 판단하고, 정부예산 확보로 논산시 장기발전 기반의 큰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코로나 충격에 이어 탄소 국경세 등 관세 신설과 글로벌 보호무역강화조치, 미·중간

무역갈등 심화로 내년도에도 일자리와 내수 경기회복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린·디지털 경제의 필수 인프라구축 등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그린경제에 대한 인식 공감대 확대에 시정을 집중하여 농산형 뉴딜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판 뉴딜과 충남형 뉴딜계획과 연계한 농산형 뉴딜사업을 집중 발굴하고 있습니다. 디지털·그린 뉴딜과, 사회 안전망으로 이루어진 한국판과 충남형은 우리시 같은 농촌내륙 지역은 소외되어 있어, 더욱 더 적극적으로 농촌형 뉴딜과 지역개발 뉴딜을 발굴함과 동시에 농산형 뉴딜사업을 확정하여 계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방 국가산업단지와 정부 뉴딜사업 및 국방부 스마트 국방혁신과 연계를 통해 4차산업의 첨단과학기술을 국방 전 분야에 반영하는 스마트 국방 혁신도시 기반을 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통시장 등 소규모 자영업체가 경쟁력을 갖추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무안심시장 시설 노후화 및 편익시설 부족으로 인해 주변상권과의 경쟁력이 떨어져 이용객이 감소하고, 시장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먹거리, 볼거리, 체험거리가 공존하는 연무안심시장 현대화사업과, 화지시장 일원에는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여, 시장의 자생력 확보 및 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소상공인 및 청년창업자 지원을 위한 지속가능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논산시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을 통해 노·사·민·정간 상생협약으로 지속가능한 고용창출과 지역기업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농촌은 농업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고령농, 소규모·영세농가 등은

시장 경쟁력 및 농업정책에서 소외되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농가생산시설인 소형 비닐하우스를 지원하여, 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품목별 생산량 증대와 대도시 로컬푸드 시장확보 등 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정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논산 스마트농업복합단지조성 사업이 선정되어, 총사업비 127억을 확보하여 딸기 등 원예산업 교육의 스마트화와 육묘 안정공급 등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새롭게 도약하는 관광거점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도 국민들의 관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K방역으로 인해 우선은 국내 관광을

중심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관광의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관광전략 및 투자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3월에 탐정호 출렁다리 개통은 논산 관광의 새로운 변화와 성장동력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출렁다리 미디어파사드, 수변정원, 자연문화예술촌 등 스토리가 있고, 차별화된 콘텐츠가 풍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복합휴양관광단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선사인랜드 체험 콘텐츠 다양화와 군 문화를 접목한 호국문화체험단지 조성을 추진하여, 국방테마거점을 마련하겠습니다.

강정을 근대역사문화 도시로 재창조하기 위하여 근대문화유산의 역사·교육적 활용과 4차산업을 적용한 콘텐츠 개발 등 상호 융·복합을 통해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을 내년에 준공하고, 교육·체험활동이 가능한 돈암서원 한옥마을 개관과 유교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형 유교테마파크 조성을 준비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백제군사박물관에 스마트 교육용 솔루션 및 온라인 VR전시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디지털뉴딜-ON 리뉴얼사업에 총사업비 39억을 투입하여 탐정호 관광자원과 연계한 복합문화관광거점을 만들겠습니다.

넷째, 시민 모두를 위한 생애주기 맞춤형 학습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헌법 제31조에 의거 시민들의 보편적 학습권리 보장과 자율적인 학습 여건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의 선도적 실천 모델인 논산형 온시민 평생장학금 지원사업을 제도·재정적으로 면밀히 분석하여 시민 모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아울러,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우선 동지역 2개소, 읍지역 1개소 총 3개소에 논산형 학교안 초등돌봄센터를 구축하여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고,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초중고 디지털 교육인프라, 온라인스튜디오, 스마트 도서관, 평생교육 온라인 교육시스템 등 미래형 교육환경과 교육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하여 중단된 청소년 글로벌 인재 해외연수를 내년에는 코로나 상황을 좀 더 면밀히 주시하면서 촘촘하게 준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배움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고자 평생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도 소홀함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2016년 찾아가는 어르신 한글대학을 시작한 이래 6년째를 맞아, 우리시만의 특화된 학력인정제도 일환으로 어르신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졸업식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또한, 한글대학 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동아리 운영과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여 어르신들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시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과 시민을 행정의 수혜자에서 주체자로 확대하는 ‘시민중심의 자치분권 플랫폼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따뜻한 행복공동체 동고동락사업, 마을자치회구성, 주민세 전액 환원, 주민참여예산제, 읍면동장 시민추천공모제, 자치지원활동가 양성대학 등 주민들의 자치역

량 강화와 공동체 복원의 완성 단계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주민자치회와 마을 공동체의 연계를 확고히 하고,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행정협력 활동가를 15개 읍면동에 배치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주민자치 1번지 논산’, 공동체 민주주의 도시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자치분권 도시로 나가기 위해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학교 등 내실있는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하고, 비대면 외부환경에 적극 대응한 주민주도 맞춤형 언택트 교육을 위한 온라인 교육을 상설화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논산시의 내년도 본예산 규모는 총 8,408억원으로 일반회계 7,618억원,
특별회계 790억원 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계획들은 2021년도 예산안 등 행정의 힘만으로 실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의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참여예산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산시민 여러분!

구본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와 양극화, 저출산 및 고령화 등 지금의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도,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는 것도 시정의 주인인 시민모두가 동고동락할 때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소통과 협력’, ‘참여와 연대’를 통해, ‘사람이 살만한 도시’, ‘사람을 살게하는 도시’, ‘가장 사람다운 도시’로의 발전과 ‘지속가능한 논산, 더 잘사는 논산’으로

의 성장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힘든 한해였지만, 새벽이 오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처럼 가슴 속 희망을 되새기며 남은 한 해
건강히 마무리하시길 기원드리며,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그리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3.

논산시장 황명선